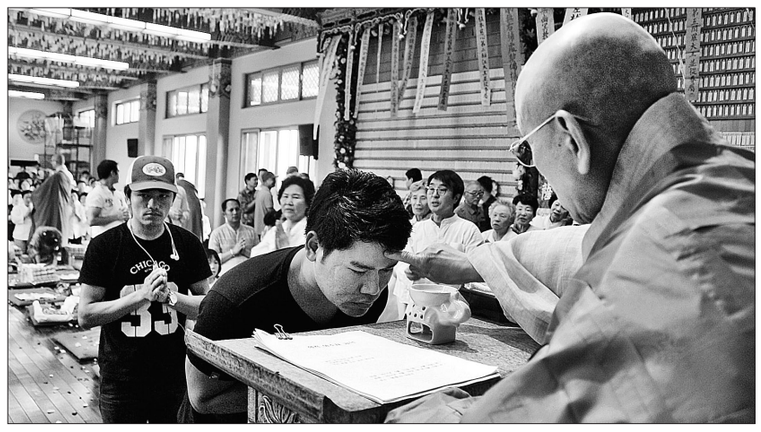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정수기를 해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부처님 품안으로”

참좋은우리절, 월주 스님 초청 마정수기법회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직접 마정수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7월 9일 큰법당에서 정유년 윤달 생전예수재 및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월주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해 도량 앞 관음전서 작법, 향공양, 함합소 배포, 마정수기, 법문, 생전예수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네팔출신 이주노동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행사의미를 더했다.

월주 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금생의 업장소멸을 통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을 증명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전예수재는 업장소멸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로 이끄는 척도”라고 강조한 뒤 “오늘 마정수기를 받은 불자들은 반드시 선업을 쌓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행복을 얻고 열반경지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운사 하소백련축제서 색소폰 동호회가 관객들에게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열어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연꽃축제인 하소백련축제가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하소백련축제는 7월 7~16일까지 열흘간 ‘화중생련, 불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다’란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7일 청운사 무량수전 앞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색소폰 동호회, 아코디언 동호회, 기타 동아리의 식전공연에 이어 행위예술가 강산의 먹행위, 예사랑 무용단의 축원무, 마술공연, 태평무공연, 한국무용 등의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인 8일에는 가수 정수라와 아리랑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대중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연주하고, 대표곡을 열창했다. 이외에도 청운사 무량수전에서는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전북무형문화재 탱화장)의 불화와 달마전이 열렸다. 부대행사로는 연자반(연잎밥), 연칼국수, 연잎차 등 연꽃을 재료로 조리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도원 스님은 “여느 해보다 더위가 심하고, 불쾌지수도 높아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한여름의 땀을 식힐 하소백련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 연꽃 향기 속에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복자전거 덕에 학교가 가까워져요”

빛고을나눔나무, 네팔에 자전거 선물 계획
10월까지 기금 모아 100대 직접 전달키로


지난해 광주 빛고을나눔나무가 룸비니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전달한 자전거.

네팔 룸비니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돕고자 한국불교계가 희망의 자전거를 전달한다.

광주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오는 10월 16일 네팔 룸비니를 방문해 지역 3개 초등학교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행복자전거 100대와 학용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해에도 네팔에 자전거를 후원했으며, 올해에도 이어가기 위해 후원기금 마련 찻집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 행사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서 하루 2~4시간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더 나은 교육환경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을 전하자는 취지.

상임이사 보응 스님은 “학교에 가기 위해 8㎞를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이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자 한다”며 “하루 통학시간 4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 아이들의 행복도와 교육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복을 선물하는 자전거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 지역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금 마련을 위해 빛고을나눔나무는 현재 방송광고와 사찰 모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등산 세심정사에서 10월 14일 후원 일일찻집도 열 계획이다. 지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후원
“통학시간 줄어 도움되길”
전달 앞서 일일찻집 열고
후원 독려해 1천만원 마련

해에 전달한 자전거 100대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행사는 네팔에 스님들과 신도들이 직접 방문해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에게 하나씩 직접 전달한다.

강성록 기획팀장은 “지난해 100대를 선물했는데, 현지에서 자전거가 갖는 의미는 ‘집안의 새로운 교통수단’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월 평균 8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반가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는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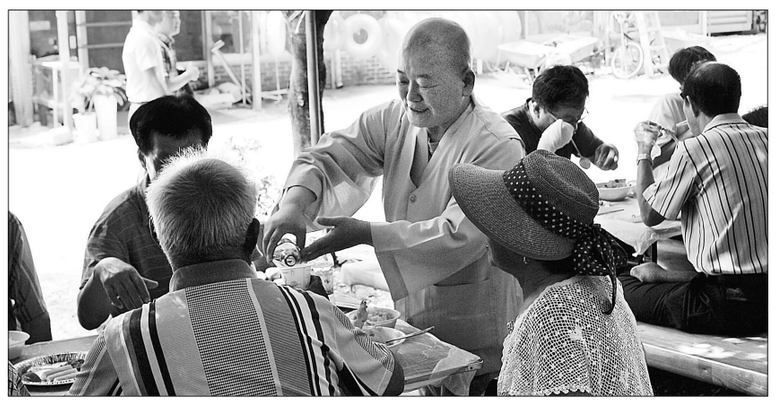
빛고을나눔나무에 따르면 자전거를 선물 받은 대부분의 가정은 2~3명의 아이들이 한 자전거로 함께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히말라야 남단에 위치한 룸비니는 높은 산들이 위치한 북부에 비해 비교적 평지를 이루고 있어 자전거 효용성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는 평가다.

또한 빛고을나눔나무와 함께 행복자전거 지원사업을 돕는 네팔 현지인도 눈에 띈다. 광주에서 노동자로 6년간 일을 하다 고향 룸비니로 돌아가 사업을 하는 고팔 씨는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먼 타지에서 일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광주지역 불교외국인단체의 은혜는 잊지 않고 있다. 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런 인연으로 고팔 씨는 현지 학교와 마을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집집마다 방문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도우미를 자청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 2015년 네팔 지진피해지역에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연합으로 9600만원을 모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네팔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자비신행회와 기금을 모아 1000만원을 마련해 자전거를 선물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사회 공양주 거듭난 쌍봉사

시각장애인 문화행사서
초복 대중공양 봉사해


진안군 시각장애인 문화행사에 참여해 점심 대중공양 봉사를 펼친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한 어르신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고 있다.

전북 진안지역에서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쌍봉사는 7월 12일 진안군 정천면 초원가든에서 열린 진안군내 시각장애인 문화행사에 참여해 삼계탕 · 휴대용 미니 선풍기 · 밑반찬 등을 나누며 대중공양 봉사활동을 펼쳤다. 쌍봉사 섬김봉사단 불자 10여 명과 함께 동참한 이날 대중공양에는 진안군내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어르신 등 15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때마침 초복을 맞아 진안군시각장애인협회가 마련한 문화행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장기자랑과 자원봉사자 가족들의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평소 시각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유독 가슴 아프게 느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마침 초복을 맞아 시각장애인 문화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열의가 대단해 앞으로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의 작은 포교당인 쌍봉사는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나눔, 김장김치 나눔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앞장서 전개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매월 군내 마을단위의 경로당을 찾아 점심공양을 대접하는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산 탑사와 함께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을 위해 후원한 기금으로 ‘사랑의 집’이 마련되는 등 지역사회 모범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유적 등 무등산권 유네스코 인증받을까

현장실사 위원 운주사 등 방문

화순 운주사를 포함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유네스코 현장실사 위원 2명은 7월 1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운주사를 포함해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화순 적벽, 담양 죽녹원 등을 둘러보며 현장실사를 했다.

현장실사가 끝나면 올해 후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등을 심사해 인증권고 여부를 결정한 뒤 최종 인증여부는 내년 4월께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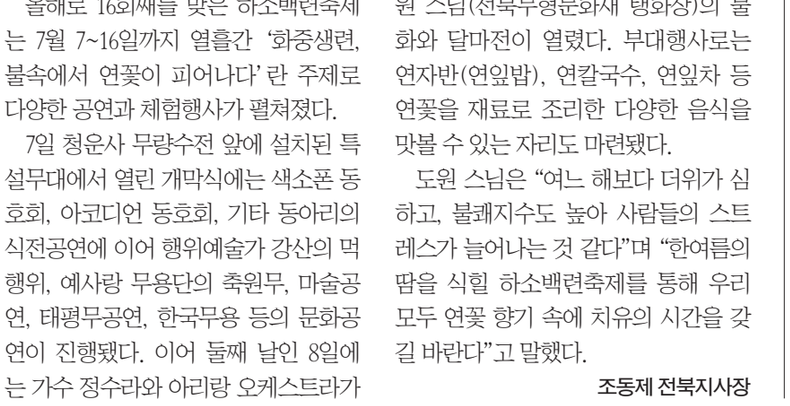
특히 무등산은 증심사, 약사사, 원효사, 문빈정사 등 전통사찰 10여 곳과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산재한 광주의 진산으로 ‘무등(無等)’이란 이름 또한 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에 이어 세 번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봉행 천장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천장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입 제 일 :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단양 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천장사
H·P 010-5960-208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